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주소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02)921-5093  
FAX 02)921-7847 E-Mail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

머리글

정민하 올리오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 영원한 생명의 길

+그리스도의 평화.

예전에 ‘굿바이’라는 일본 영화를 보았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몸담았던 오케스트라가 해체되면서 실직하는데 생계를 위해 우연히 ‘납관 전문회사’(장례식 관련 업종)에 들어가면서 그가 겪는 일들을 다룹니다. 그런데 영화는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그 내용이 어둡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마음 아픈 순간들을 따뜻하면서도 부드럽게 그려줍니다. 또한 망자에 대한 예의와 정성스러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깊은 영감을 얻는 장면이 있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화장터에서 근무했던 어떤 할아버지가 주인공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죽음은 문이야. 문을 열고 나가면 다음 세상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죽음은 문이라고 생각해.”

“이 문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지...”

이 대사를 통해 삶과 죽음, 신앙의 진리를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은 대개 두렵고 절망스럽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겪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을 겪으시며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죽음을 이기셨으며 인간에게 영원한 거처가 있다는 진리를 당신 부활로써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인생의 길이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삶,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여정이 됩니다. 더불어 이 여정을 통해 하느님과 함께 친교를 나누며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가톨릭 신앙에서 11월을 위령성월로 지냅니다. 이 시기는 세상을 떠난 이들을 특별히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위령성월을 슬픔과 절망이 아닌 하느님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희망과 기쁨의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낙엽이 지는 가을의 끝자락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부활과 생명의 신비를 우리 모두 마음 깊이 간직하며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하는 위령 성월을 보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겨감이오니  
세상에서 깃들이던 이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에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나이다.”

〈위령 감사송1中〉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



10월 7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가 가톨릭회관 3층에서 부위원장 정민하 올리오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이 미사에는 지난 9월 9일 축일을 맞이한 미리암 수녀와 10월 28일 송정섭 시몬 신부의 축일 축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표봉사자들은 송정섭 신부와 미리암 수녀의 영육간 건강을 위한 마음을 담은 특송을 준비해 주셨고, 시니어카리타스 합창단도 함께 해주셔서 더욱 풍성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회사목국 전체 직원 야유회



10월 13일(금) 사회사목국 14개 위원회의 직원들이 함께 강화도 갑곶순교성지로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천주교인 우윤집, 최순복, 박상손이 갑곶돈대에서 효수되었다는 문헌에 따라, 온전한 믿음 그 하나를 지켜낸 것만으로도 많은 순례자가 이곳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천교구에서 이곳을 성지로 조성하였습니다. 순교자들의 여정을 묵상하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느끼며, 위원회 직원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사회사목국 서품 2년 차 사제 연수



10월 16일(수) 성앵베르센터에서 서품 2년 차 사제 연수 중 사회사목국의 14개 위원회가 부스를 준비하여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연수에 참석한 23명의 서품 2년 차 사제들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스에 방문하여, 수용복도 입어보고 교정사목의 활동사진과 50주년 기념 영상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용자, 출소자, 피해자, 봉사자와 후원회원들에 대하여 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2년 차 사제들이 교정사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왜'와 '무엇'의 갈피에서

이경숙 로사리아 / 서울구치소 최고수 봉사자

‘도대체 난 여기 왜 왔을까?’, ‘왜’ 보다 ‘무엇 하러’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꾸벅꾸벅 졸음은 쏟아지고 저는 자꾸만 자신의 효용에 집착하니 도무지 시간이 가질 않았습니다. 12년, 제 집처럼 드나들던 소년원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겨온 건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성당 주일학교와 소년원에서 교리교사로 일했던 긴 세월, 남편은 주말마다 늘 저를 기다렸습니다. 주말이면 다른 사람들처럼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의 속마음을 헤아린 것입니다. 마침 서울구치소에 봉사 자리가 났고 무엇보다 평일 봉사라 냉큼 응답했는데 첫날 집회에서부터 그만 ‘무엇 하러’에 매몰되었습니다. 자신의 효용가치에 대해 회의감이 든 것입니다.

토요일마다 아이들과 눈 맞추고, 차곡차곡 쌓여있던 마음속 이야기를 들으며 교리를 가르치던 소년원 봉사는 참으로 역동적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구치소 분위기는 대체로 잔잔했고, 제가 없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최고수 형제들이 먹을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가는 것 외에 도무지 쓸모라곤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느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까닭을 알아내지 못한 저는 쏟아지는 졸음과의 싸움에서도 번번이 졌습니다. ‘수용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찾아간 사람이 무슨 추태란 말인가. 조금만 더 기다려 보고 그만둬야지’ 걱정했을 때 하느님은 한 형제를 통해 ‘무엇 하러’에 답을 주셨다.

일찍 아버지를 여윈 그는 어머니와 친척들로부터 버림받고 시설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생활은 혹독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열일 곱에 보육원에서 탈출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시장 팔죽 가게를 지나다 “커다란 팔죽 솥 옆에 서서 언 몸을 녹였다”라는 말을 듣는데 저는 서너 걸음 앞질러가 말허리를 잘랐습니다.

“그 아줌마가 팔죽 한 그릇 줬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이보다 더 절망적인 말이 세상에 또 있을까? 그 팔죽집 주인이 춥고 배고픈 어린 소년에게 따뜻한 팔죽 한 그릇 나눠 줬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그의 인생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배고프면 또 와.”라며 올 때마다 팔죽 한 그릇씩 넉넉히 담아 건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며 그날 저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로사리아야, 네가 그들에게 따뜻한 팔죽 한 그릇이라도 끓여 대접하렴.”

지금은 금요일로 봉사 일정을 옮겨 오전 오후로 최고수 형제들을 만납니다. 하루하루 고통의 날들을 사는 그들에게 따뜻하고 구수한 팔죽 한 그릇 퍼 줄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 응원과 기도 속에 한 층씩 쑥아 올라가는 튼튼한 창업 다리

이○○ / 2024년 창업 대출자

저는 총 5년 1개월의 형기를 받고 4년 4개월을 복역 후 2022년 12월 성탄절 가석방으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이○○라고 합니다. 출소 후 사랑하는 가족과 세상에 하나뿐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제 딸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막상 사회에서 격리되었던 4년의 세월은 전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평범하게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갈까’하는 것이 제일 큰 고민이었습니다. 점점 커가며 변화되는 아이의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는 것이 엄마라는 자리였고 점점 노쇠해진 어머니의 깊어진 주름, 제가 없는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신 두 다리와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어지고 휘어지고, 멀쩡한 곳이 한 곳도 없는 어머니 앞에선 어쩔 수 없는 죄스럽고 무능한 자식이었습니다.

4년의 수용 생활로 지칠 만큼 지친 제 몸과 코로나를 겪으며, 달라진 세상에 적응하지 못해 계속 움츠러들고 사람 만나기조차 꺼려지던 저는 누군가의 도움조차도 의심이라 생각하고 일과 집을 반복하며 은둔 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구치소와 교도소에서는 교도관들의 지시 아래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다 보니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정말 천운이긴 했는지 출소 전부터 꼭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던 동부구치소 박○○ 계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으로 송정섭 신부님과의 인연을 맺을 수 있게 되었고 계장님과 신부님과 약속했던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한 발짝씩 사회 속으로 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 시간을 쪼개어 편의점, 생수 배달 등 아르바이트하기도 했고 간호조무사 학원의 휴게실, 강의실 등을 정리하며 조금씩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했습니다.

‘나는 결국 사회에 나와도 이렇게 보잘것없이 살아야 하는구나, 나는 결국 사회에 나와도 불품없구나’ 이런 생각들로 다시 움츠러들 때 박○○ 계장님의 한마디,

‘○○아, 누군가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 때, 내미는 손이 있을 때 그 손을 용기 내어 잡아야 하는 거야. 자꾸 뒷걸음질 치지 마!’

이 한마디가 저를 지금 이 자리로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나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창업의 세계로 뛰어들었습니다. 창업의 길은 그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이 뒤에 계심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기쁨과희망은행의 면담을 통해 저의 다짐과 목표, 그리고 사업 아이템의 적절함을 확인시켜 드린 후 사업의 계기, 계획, 목표, 운영 계획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서류를 부지런히 작성하였습니다. 생계를 이어가야 해서 일을 하면서 준비하려다 보니 목마른 것은 저인데 본부장님께서 계속 챙겨주셨고 하나하나 완성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멘토이신 이형일 위원님과 첫 만남으로 드디어 창업의 길로 한 발짝 들어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저는 기쁨과희망은행이란 곳은 그냥 걸보기 지원일 거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얼마 뒤 그런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날카로운 질문과 제 사업 아이템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 도움을 주신 그 따뜻했던 현장 심사 날이 생각납니다. 현실에 부딪쳐야지만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게 용기를 심어주셨습니다. 사실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지라 제 생각이나 사업계획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여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따뜻했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면접 심사 날이 다가왔는데 사시나무 떨듯 면접장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의심이 아니라 걱정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는 진심을 느꼈습니다. 대망의 면접이 끝나자,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정말 초조했습니다. 현재 내 생활에 충실하며 꾸준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차 합격의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더 멘토님과 만남이 주어졌고 중간중간 멘토링의 시간은 걱정이나 고민을 싹 사라지게 하는 창업단계에 있어 중요한 일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뒤죽박죽 복잡한 머릿속, 혼자서 하는 걱정이 되려 저에게 무거운 바위였음을 알았습니다. 멘토링은 사잇길로 엮나갈 뻔한 저를 단단히 손잡아 주시고 더 계획 있게 탄탄히 앞설 수 있는 인상 깊은 날이었다고 자신합니다.

드디어 창업자금 지원 확정 최종 결과가 발표가 났습니다. 출소일만큼 기쁘고 황홀했습니다. 진짜 이 큰돈이 나를 위에 지원된다니 막막하기도 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일 큰 문제였던 임차보증금 지급을 정말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무사히 마음에 드는 점포를 계약할 수 있었고, 창업을 준비하며 또다시 공사의 문턱에 막혀 자금난을 겪기도 했지만, 수많은 발품팔이로 최소의 금액으로 공사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젊은이가 성공해 보려고 하니 기특해 선뜻 도와주시겠다고 업체에서 주방 기구부터 환풍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 다음 페이지에 계속)

막막함이 많았으나 열심히 하는 자를 알아보시는 것인지, 모든 준비 과정 하나하나가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 하나가 이렇게 큰 도움들을 주시니 저의 창업은 절반은 성공한 것과 다름없다 생각이 들었고 공사가 마무리될 시점에 또다시 주춤거리게 되는 저를 발견했지만, 다시 한번 진행한 멘토링으로 인해 복잡한 회로가 정리가 되면서 이제 자신감을 얻어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의 멘토링은 사업에 대한 용기와 지식과 이제 코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 개업 준비 등 많은 말씀으로 조금 정리가 되어 이제 진짜 사장님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의 어두운 과거에 자신 없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함이 저를 마구 뒤틀었습니다. 서류접수부터 면접 심사까지, 그리고 합격의 날까지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저 자신을 다독이고 다듬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께서 저를 응원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신부님을 비롯한 모든 분과 교도관으로 근무중인 박○○ 계장님, 묵묵한 장○○ 계장님, 기쁨과희망은행 이형일 위원님, 그리고 늘 저와 소통하며 ‘그럼요 당연하죠, 잘될 거예요’를 외쳐주시던 김일호 본부장님, 면접 심사에서 저를 소리 없이 응원해 주시던 많은 심사위원님.

이 모든 분께서 어떤 걸 염려하고 걱정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창업지원을 통해 철저한 준비성도 배웠고 인내심도 배웠습니다. 비록 남들이 볼 때는 작은 가게일지라도 저에게는 많은 분의 뜻과 기도가 담긴 큰 출발선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저는 벌써 창업 성공의 길을 달리는 기분입니다.

글들 적고 보니 이 많은 분의 지지와 관심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튼튼하게 준비할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휴~하고 안도와 기쁨의 숨을 내뿜고 있네요.

그냥 창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의 탄탄한 응원과 기도 속에서 한층 한층 쌓아 올라가는 이 튼튼한 창업 다리는 곧 성공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자신이 있습니다.

저의 멘토님과 멘토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의논하며 계속 성공의 길로 뻗어 나갈 것입니다. 모르면 물어보고 의논하며 계속 도움을 요청하며 꼭 성공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저처럼 막막하고 힘든 분들의 창업 준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식지 않는 열정으로 잘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지난 10월 350호 소식지의 박○○ 교도관의 추천서를 받아 기쁨과희망은행 창업 대출에 지원하고, 심사를 통하여 대출받게 된 이○○ 님의 소감문입니다. 기쁨과희망은행의 창업 대출과 지원이 디딤돌이 되어 앞으로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송정섭 신부님께

안녕하세요. 바오로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통해 신부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를 위해 힘써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한 밖에 있는 제 가족들에게도 저를 대신해 가정의 평화를 위해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인사를 드려야 하지만, 이렇게 편지로 밖에 인사를 드리지 못해 제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저지른 이 범죄가 무엇이든 제 탓으로, 항상 죄를 반성하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더 착실하게 살아가게끔 저를 이끌어 주시는 거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오히려 제게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층 더 저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 같고, 또 제게 신부님을 보내주시어 저에게 더욱 큰 힘을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저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느님과 예수님,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주교 신자와 함께 하고 있으니, 저는 이렇게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 걱정이 없습니다.

사실 밖에 있는 저의 어머니와 조카가 항상 걱정되었는데, 위원회와 신부님이 신경을 써 주시니 이렇게 제게는 축복과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크나큰 도움과 위로가 되었고 저를 위해 기도까지 해주시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하느님께도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신부님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미사에서 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07.26.

바오로 올림

\*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생활하며 수용자가족지원을 받는 형제님이 송정섭 신부님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입니다.  
형제님에게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 2024년 12월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카카오채널

### ● 행사 알림

- 9월 5일(목)~12월 5일(목) 2024년 제25회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 / 교정사목센터
- 11월 4일(월) 사형수를 위한 위령미사 / 광탄 나자렛 묘원
- 11월 5일(화)~6일(수), 13일(수)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5기 인성교육 / 서울남부구치소
- 11월 11일(월)~15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서울동부구치소 남사
- 11월 18일(월)~20일(수)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여주교도소 남사
- 11월 20일(수) 해밀 가족 미사 / 교정사목 센터
- 11월 22일(금)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31차 이사회
- 11월 25일(월)~29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안양교도소 남사



### ● 새로운 교정사목 가족을 소개합니다. (24/9/16~10/15)

2024년 9월~10월에는 권용범 요셉, 권용석 레오, 박지우 사라, 손영일 알렉산델, 위례성모승천성당 김경희 루피 나 외 104명님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위례성모승천성당 김지숙 아셀라 외 44명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 방법

### 1.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atholic-correction.co.kr>)

‘후원신청’을 클릭 및 오른쪽 ‘모바일 후원신청 QR코드’로 신청

### 2.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전화로 신청하기 / 후원사업부(02-921-5094)

### 3. 직접 은행에 신청하기

- 직접 자동이체 신청 시 후원사업부(02-921-5094)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아래 ‘후원 계좌’로 이체 등록
- 은행 방문 시 준비물(신분증, 도장, 통장) 지참 후 아래 계좌로 이체 신청



▶ 모바일 후원 신청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